

영아기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시영* · 엄은정**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53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양육행동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부담감이 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매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개편된 양육지원 체계 속에서 아버지 양육 실천을 이끄는 심리적 기제를 규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정교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아버지,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행동, 양육부담, 양육효능감

논문 투고일 : 2026. 03. 31.

최종심사일 : 2026. 06. 05.

게재확정일 : 2026. 06. 24.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마니산유치원 교사

Corresponding author : Eom Eun Jeong. 510-1 Ganghwanam-ro, Yangdo-myeon, Ganghwa-gun, Incheon, manisan-yuchiwon E-Mail : uej1977@hanmail.net

I. 서론

21세기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인구 구조적 격변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이 2025년 8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0.748로 집계되었다(국가통계포털, 2025).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극단적인 수치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국제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모 공동육아휴직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장기적 돌봄 참여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공동양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지현, 2022; 정우영, 2024)는 최근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단순히 ‘부모 일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양육지원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아버지가 주로 생계 부양자 역할에 집중하고,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는 성별 분업 구조가 지배적이었으나,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구도를 완화하고 아버지를 능동적인 양육 주체로 재정립하고 있다(박선주, 2017).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선의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실제 양육행동의 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제도 이용률의 증가가 곧바로 정서적 상호작용의 증대나 양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202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문화,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생계 책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지속

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아버지 양육지원제도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라진, 2016; 라지영·허가영, 2025; 방희화, 2024).

이처럼 육아지원제도 학술적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태동기 및 비교 연구(2010-2015) 시기에는 한국 사회에 생소했던 '남성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개념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스웨덴, 일본 등 선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초기 육아휴직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경험을 통해 남성 양육이 가정 내 성역할 인식 변화에 기여함을 입증하였다(김민정, 2015; 안현미, 2010; 이정현, 2011). 둘째, 인식의 확장과 수용 격차 분석(2016-2021) 시기에는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후에는 왜 누군가는 제도를 쓰고, 누군가는 쓰지 못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불균형'에 주목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수용 격차, 직종(교육행정직 등)에 따른 활용도 차이를 규명하였다(김나영, 2019; 김미경; 2021).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 존재 여부보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가 실제 활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김라진, 2016; 심지은, 2018; 윤미화, 2016). 셋째, 정책 실효성 검증(2024-2025) 시기에는 아버지가 느끼는 정책 만족도가 단순히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배우자의 후속 출산 계획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기능 향상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라지영·허가영, 2025; Pizarro et al., 2024).

양육부담은 양육지원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며, 역할 과중, 시간 압박, 경제적 부담, 정서적 소진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도경민·이희영, 2019). 이는 단순한 양육 시간이나 노동량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부모가 양육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스트레스 경험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역할과 돌봄 제공자 역할이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심리적 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과 양육 책임의 압박이 높은 수준의 양육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조형숙·김수오, 2024). 라지영과 허가영(2025)은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 이용이 양육참여를 매개로 가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시간 자원과 역할 수행 부담이 가족 역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아버지의 역할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지원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행동과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신념과 자신감을 의미한다

(Albert Bandura, 1997). 부모가 자신의 행동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간주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 모의 유아교육기관의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이경이,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극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는 소극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에게 비해 부모효능감이 높았다(차동혁, 2014). 이는 제도적 지원 경험과 만족도가 양육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양육행동은 양육지원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제적 행동이며(문예은·이주연, 2025), 부모가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역할 이론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 갈등과 역할 과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박주희, 2015). 아버지가 직장인과 양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역할 긴장이 증가하여 양육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현주와 엄명용(2013)은 제도적 지원이라는 구조적 자원은 양육부담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양육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한편, Albert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환경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Bandura, 1997), 제도 만족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양육효능감이라는 인지적 요인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으며(최빛내·정현숙, 2021), 향상된 양육효능감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민정, 2015; 원동원, 2024; 홍다경, 2025).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는 단순한 제도 평가를 넘어 역할 긴장과 양육부담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거쳐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실제 양육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 변인 간의 개별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주로 머물러 있어, 제도 만족, 양육부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제도적 지원 경험이 심리적 기제를 통해 실제 양육행동으로 발현되는 구조적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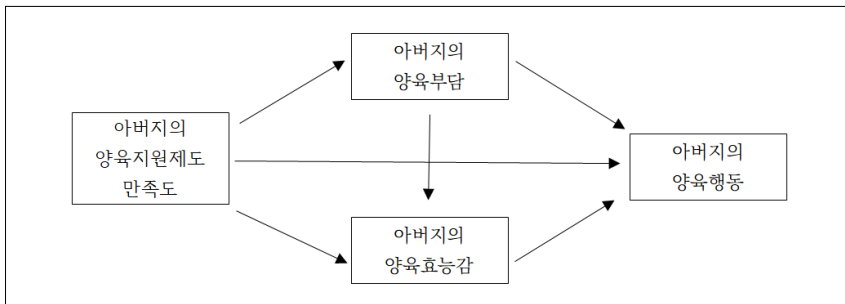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마다 상이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도의 효과가 개인의 심리적 경험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과 아버지 양육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아버지가 체감하는 부담과 만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버지를 보조적 참여자가 아닌 주체적인 양육자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양육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행동, 양육부담,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단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간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2차 본조사(2023)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는 태아기부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의 양육, 부모의 내·외재적 요인,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험과 환경적 영향 등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진다(육아정책연구소, 2025).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 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된 2차 본조사 결과 아버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을 실시한 전체 아버지 중 양육지원제도를 경험하여 만족도에 대한 설문 에 참여한 아버지 5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406명(75.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349명(64.9%), 전문대 81명(15.1%), 고등학교 52명(9.7%)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결혼 상태는 모두 유배우였으며, 맞벌이 가구는 348명(64.7%),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175명(32.5%)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근로소득 수준은 301~500만원이 250명(46.5%)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200~300만원이 193명(35.9%), 501~700만원이 61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 기술통계 분석 결과

(N=53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이하	16	3.0
	30대 이하	406	75.5
	40대 이하	113	21.0
	50대 이상	3	0.6
학력	중학교	2	0.4
	고등학교	52	9.7
	전문대(기능대학)	81	15.1
	대학교	349	64.9
	대학원 석사	44	8.2
	대학원 박사	10	1.9
결혼상태	유배우	252	100
	무배우(별거, 이혼, 사별, 미혼)	0	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48	64.7
	맞벌이 가구 아님	175	32.5
	알 수 없음	15	2.8
근로소득	200~300만원	193	35.9
	301~500만원	250	46.5
	501~700만원	61	11.3

701~900만원	11	2.0
901만원 이상	10	1.9
미취업	13	2.4

2.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23년에 실시한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데이터 2차 본조사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 질문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7개 항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1”,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2”, “보통임=3”, “대체로 만족함=4”, “매우 만족함=5”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원제도의 만족도는 높아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0$ 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 행동

아버지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2001)가 개발한 양육행동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1$ 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문항을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부모효능감 척도를 아버지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hach's $\alpha = .813$ 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양육부담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데이터 2차본조사 질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적 부담을 의미한다(신나은, 김정숙, 박선빈 2026). 이는 장혜경 외(2006)가 사용한 돌봄부담 척도의 4가지 영역(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과 양육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계적 부담을 추가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여 아버지의 양육부담을 측정하였다. 세부문항은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정서적 부담(양육 스트레스 등), 사회적 고립(지인, 이웃과 소통기회 부족 등), 경제적 부담(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불일치 등)이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1=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4=매우 부담스러움)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부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hach's $\alpha = .728$ 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을 활용하여 Cronh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단순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sess 4.2를 활용하여 4-model, 6-model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과정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Hayes, 2012)을 활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을 95%수준으로 설정하고 재표집 회수는 5,000회로 지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표 2>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지원만족도 ($M=3.879$, $SD=1.005$)와 양육행동($M=3.96$, $SD=0.569$)의 평균이 서로 유사하게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M=3.658$, $SD=0.494$), 양육부담($M=2.127$, $SD=0.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왜도는 $-.911\sim.185$ 사이 첨도는 $-.256\sim 1.039$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왜도의 절대값이 2.0 이내, 첨도의 절대값이 7.0 이내 라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445\sim.659$ 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종속변수 회귀모형에서 공차는 .787 이상, VIF는 1.271이하로 나타나 공차는 .20 이상이고 VIF는 5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538)						
	N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양육지원제도 만족감	538	1.00	5.00	3.879	1.005	-.911	.633
양육행동	538	1.33	5.00	3.876	.569	-.573	1.039
양육효능감	538	2.19	5.00	3.658	.494	.185	-.254
양육부담	538	1.00	4.00	2.127	.552	.164	.017

* $p<.05$, ** $p<.01$

2.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7.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감은 양육행동($r=.169, p<.01$), 양육효능감($r=.129, p<.05$)과 서로 정적 상관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r=.659, p<.01$)를 나타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양육지원제도 만족감($r=-.107, p<.05$), 양육행동($r=-.200, p<.01$), 양육효능감($r=-.445, p<.01$)과 서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538)

	양육지원제도 만족감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
양육지원제도 만족감	1			
양육행동	.169**	1		
양육효능감	.129*	.659**	1	
양육부담	-.107*	-.200**	-.445**	1

* $p<.05$ ** $p<.01$

3.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의 단순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4를 사용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양육효능감의 단순매개효과 결과 종속변인을 양육효능감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082, p<.01$) 모형의 설명력은 1.67%($R^2=.018$)로 나타났다. 이때, 양육지원제도만족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B=.634, p<.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하는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11.30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4.13%($R^2=.441$)로 나타났다. 이때,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746, p<.001$)과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048, p<.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효능감을 거쳐 양

육행동에 이르는 간접경로 효과는 .047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은 .014 상한 값은 .082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효능감을 거쳐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양육효능감의 단순매개효과 결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M(양육효능감)			Y(양육행동)				
	B	SE	p	B	SE	p		
X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a1	.063	.021	.003	c'	.048	.018	.009
M (양육효능감)	-	-	-	b1	.746	.038	.000	
Constant (상수)	3.412	.084	.000	.960	.148	.000		
			R ² =.017		R ² =.441			
			F(1,536)=9.082		F(2,535)=211.300			
			p=.0027		p=.000			

<표 5> 양육효능감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합계)	.048	.018	.012	.084
경로 양육지원제도만족도→양육효능감→양육행동	.047	.018	.014	.082

다음으로 양육부담의 단순매개효과 결과 종속변인을 양육부담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표 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178, p<.05$) 모형의 설명력은 1.14%($R^2=.011$)로 나타났다. 이때, 양육지원제도만족감이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력($B=-.059, p<.05$)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하는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7.70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6.21%($R^2=.062$)로 나타났다. 이때, 양육부담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190,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B=.084, p<.0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부담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본수 5000개 재추출 결과 <표 7>

로 제시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을 거쳐 양육행동에 이르는 간접경로 효과는 .011이고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은 .001 상한 값은 .025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부담을 거쳐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양육부담의 단순매개효과 결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종속 변인		
	M(양육부담)			Y(양육행동)				
	B	SE	p		B	SE	p	
X(양육지원제도 만족감)	a ₁	-.059	.024	.013	c'	.084	.024	.000
M(양육부담)	-	-	-	b ₁	-.190	.043	.000	
Constant(상수)	2.354	.095	.000		3.95	.140	.000	
	R ² =.011				R ² =.062			
	F(1,536)=6.178				F(2,535)=17.701			
	p=.013				p=.000			

<표 7> 양육부담의 단순매개효과 검증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합계)	.084	.024	.038	.131
경로				
양육지원제도만족도→양육부담→양육행동	.011	.006	.001	.025

4.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6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모든 경로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는 정적($B=.040, p<.05$)으로, 양육부담은 부적($B=-.399, p<.001$)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133$ 으로 21.33%의 설명

력을 가진다.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는 양육부담($B=-.059, p<.05$)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R^2=.011$ 로 1.14%의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양육효능감($B=.052, p<.01$)과 양육부담($B=.135, p<.001$), 양육효능감($B=.814, p<.001$)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R^2=.455$ 로 45.48%의 설명력을 가진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독립변수)가 양육행동(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독립변수)가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매개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독립변수)가 양육행동(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Hayes, 2018).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총효과($B=.095, p<.001$)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이 매개변수로 투입한 후에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계수값(B)이 .01수준에서 .05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이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표 8>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의 이중매개(직렬매개)효과 결과

예측 변수	결과 변수											
	M1(양육부담)			M2(양육효능감)			Y(양육행동)					
	B	SE	p	B	SE	p	B	SE	p			
X (양육지원제도 만족감)	a ₁	-.059	.024	.013	a ₂	.040	.019	.035	c'	.052	.018	.005
M1 (양육부담)	-	-	-	d	-.399	.035	.000	b ₁	.135	.037	.000	
M2 (양육효능감)	-	-	-	-	-	-	-	b ₂	.814	.042	.000	
Constant (상수)	2.354	.095	.000	4.351	.111	.000	.413	.210	.049			
	R ² =.011			R ² =.213			R ² =.455					
	F(1,536)=6.178			F(2,535)=72.518			F(3,534)=148.488					
	p=.013*			p=.000***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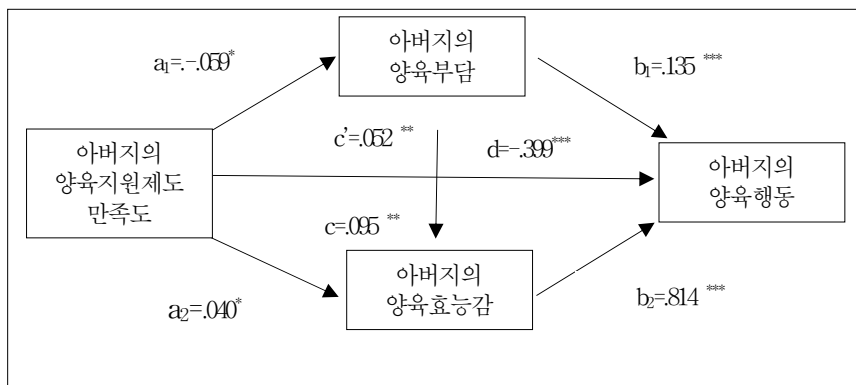
또한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효능감과 양육

부담을 거쳐 양육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을 거쳐 양육행동에 미치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매개효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표본수 5000개 이며, <표 9>와 같다. 이중매개의 경로1은 양육지원제도만족도가 양육부담을 거쳐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로 매개효과는 -.008 (-.018~-.005)로 나타났으며, 이중매개의 경로2는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효능감을 거쳐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로 매개효과는 .0323(.0034~.06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중매개의 경로3은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을 거쳐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로 매개효과는 .019(.002~.036)이었던다. 모든 경로는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9> 이중매개 효과 검증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 (합계)	.044	.017	.012	.077
경로1 양육지원제도만족도→양육부담→양육행동	-.008	.005	-.018	-.001
경로2 양육지원제도만족도→양육효능감→양육행동	.033	.016	.004	.065
경로3 양육지원제도만족도→양육부담→양육효능감→양육행동	.019	.009	.002	.036



[그림 2] 이중매개(직렬매개)효과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행동, 양육부담, 양육효능감 간에 관련성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단순매개효과와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을 거쳐 양육행동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이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부담이 낮아질수록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혜자가 체감하는 주관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가용 자원이 확보되어 양육효능감이 고양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행동 기제로 발현됨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 및 지원대책 선행연구(남중락, 2019; 윤용주, 2012)가 이루어졌으며,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인식과 유용성이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홍다겸, 2025)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양육을 실천하는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높을수록 적극적인 양육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친화적 제도를 사용해 보았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차동혁, 2014)와 양육부담이 감소할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박정민·정훈영, 2017) 선행연구는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을 고려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부담은 단일 매개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하였다. 먼저 양육효능감은 정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직접효

과도 있지만 양육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동시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이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이는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경이(2013)의 선행연구에서 취업모의 유아교육기관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양육을 실천하는 부모의 지원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흐름이 같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정민·유효인, 2020; Ehrenberg et al., 2001),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해 본 경험 아버지는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보다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차동혁, 2014)이 높은 것은 양육지원제도가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양육부담은 이는 단일매개 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동시에 양육부담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감소하고 감소된 양육부담은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주연(2009) 선행연구에서 양육지원 정책이 부모의 양육부담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라지영·허가영, 2025; 박철순·고은미, 2018; 이영미, 2005)와 해외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강경희·전홍주, 2013; 송다영·박은정, 2019)들의 실제 정책의 반영됨과 양육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부모의 비율의 증가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지원제도 및 정책마련에 있어 부모가 느끼는 양육부담을 주요인으로 보아야하며 더 많은 양육자가 양육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그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총 간접효과, 경로별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는 양육부담을 낮추고 낮아진 양육부담은 다시 양육효능감을 높이며 결국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향상시키는 연속적인 매개과정(경로3)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지원제도에 대해 만족할수록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완화시킬 뿐 아니라 양육을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양육부담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스트레스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방은주, 2018; 배효정·오민정·김하나, 2023), 영아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격려하는 양육행동 및 태도를 저해한다는 선행연구(김나래·김정희, 2025; 박희진·문혁준, 2012; 최윤희·문혁준 2016)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육아지원제도 마련시 부모의 양육부담, 양육효능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정책은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양육지원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는 양육부담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가 양육부담을 경유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양육부담과 양육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 분석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단일매개경로에서 양(+)으로 나타났던 양육부담의 경로가 병렬이중매개경로에서 음(-)으로 변화된 점은 두 매개변인이 공유하는 설명력이 분산되면서 양육부담의 고유효과가 재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중매개모형에서 양육효능감 경로의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양육부담 경로의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작동하여 간접효과의 방향이 상반되는 매개 경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중매개 경로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간접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쟁매개 양상과 억제효과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육부담이 감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다는 단선적 해석보다는 양육부담이 포함하는 심리적 의미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한다.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정책 만족도가 배우자의 삶의 질과 후속 출산 계획, 가족 기능의 향상(라지영·허가영, 2025; Pizarro et al., 2024)에 대한 검증은 양육지원제도의 다양한 순기능적 영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양육지원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해 나가도록 돕는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부담을 낮추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향후 양육지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육지원제도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양육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였으나 본 연구의 모집단 수는 538명으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체 아버지의 수 1530명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양육지원제도에 아버지들의 참여비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최대 장애물로 지적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사용의 용이성을 높이는데 상사와 동료의 비공식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유우·김효선·한주희, 2016),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동료보다 상사의 지원과 역할이 더 중요함(김진욱·강상준, 2018)을 강조한다. 이에 아버지가 국가에서 실행하는 양육지원제도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근로 기관 내에서 남성 임원들의 양육지원제도의 참여하도록 권고하거나 의무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로 기관내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를 위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영유아를 위한 부모의 건강증진 행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며(정남옥, 2009) 아버지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있어 적극적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김세정, 2025). 이에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부모,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김다정, 2018; 송미경·신효정·이은경, 2009; 이경숙, 2015; 한선혜, 2019)과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상담치료, 놀이치료, 현실치료, 사진치료 등의 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며(김혜정, 2019; 문현영·한유진, 2016; 엄혜선, 2016; 유가영, 2016;) 일반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나(정미현, 2019), 그 결과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증진시킨다(정미현·이경주, 2020). 이에 일반적인 부모와 아버지를 위한 예방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양육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양육지원제도와 정책 집행하는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수당, 보육료지원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은 여성가족부, 유아학비, 늘봄학교 등은 교육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노동부로 현재 각 부처에서 분화하여 이루어지고 있 효율적인 지원제도시행에 걸림돌이 된다(김효진, 2012). 특히 아버지들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결과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버지교육의 참여 경험은 낮은 편이었으며, 그 이유를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꼽는다. 하지만 아버지교육 이후 삶의 만족과 삶의 의욕이 생기며,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용익, 2023; 김운옥, 2024; 정숙향, 2023). 이에 부서간 경계가 없는 통합적 서비스체계는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양육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보나

커뮤니티 활동을 연결해 줌으로써, 부모의 정책의 경험과 만족도가 실질적인 양육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지원제도 만족도,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양육부담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 설명에 대한 한계를 지닌다. 자녀의 연령이 변화에 따른 변인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변인들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변인들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변인들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동시에 유아의 발달 변인 관계를 분석해 본다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더 가치있는 정책 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 발달 변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부모교육과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전홍주(2013).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의 양육지원정책 변화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6), 283-304.
- 고용노동부(2024. 12월 31일),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https://moel.go.kr>
- 국가통계포털(2025. 8월 27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https://kosis.kr/search/search.do>
- 김나래·김정희(2025). 영아기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9(4), 437-459.
- 김나영(2019).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활용 제고를 위한 요인 분석. **공공정책연구**, 36(2), 1-22.
- 김다정(2018).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라진(2016).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용격차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21).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교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5).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휴직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정(202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공동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24(3), 129-148.
- 김운옥(2024). 현실치료상담 이론을 적용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익(2023). 영화를 활용한 온라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민·유효인(2020). 아버지의 행복감이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44-65.
- 김정민·유효인(2020). 아버지의 행복감이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44-65.
- 김진옥·강상준(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사회보장연구**, 34(1), 25-54.
- 김혜정(2019).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프로그램개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2012). 자녀양육지원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중락(2019). 어머니의 양육부담 유형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용인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경민·이희영(2019).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20(4), 219-242.
- 라지영·허가영(2025). 아버지의 시간 관련 육아지원제도가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9(1), 51-74.
- 문예은·이주연(202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자기보고식 평가와 관찰 평가 간 차이. **가정과삶의질학회**, 43(4), 27-40.
- 문현영·한유진(2016).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성인놀이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놀이치료연구**, 20(1), 47-67.
- 박선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정훈영(2017). 일반 유아 부모와 발달지체 유아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에 따른 가족건강성 비교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41-61.
- 박희진·문혁준(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방은주(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의 관계.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3(2), 61-81.
- 방희화(2024). 아버지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19(3), 41-62.
- 박철순·고은미(2018). 아빠 육아 참여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육아지원연구**, 13(1), 197-220.
- 배효정·오민정·김하나(2023).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접근적대처와 정서조절 곤란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9(2), 119-135.
-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 송미경·신효정·이은경(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0(3), 1627-1643.
- 신나은·김정숙·박성빈(2026).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상호의존모형 분석. **육아정책연구**, 20(1), 55 - 78.
- 심지은(2018). 영아기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육아인식 및 현황과 자녀양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미(2010).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정책 성격에 관한 한국·일본·스웨덴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혜선(2016). 초등학교 부모의 자기성장과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원동원(2024).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지식, 양육동기,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IMS)모형을 기반으로.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영(2016). 사진치료프로그램이 유아기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신한대학교 생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 (2025).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기초조사 I ~ 2차년도 본조사 사용자 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미화(2016). 아버지의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아버지 육아휴직자 가족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주(201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과주시 운정지역의 개인 특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녀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이(2013). 취업모의 유아교육기관 이용만족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관계.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영미(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3(6), 95-104.
- 이유우·김효선·한주희 (2016). 상사와 동료의 비공식적 지원, 가족친화제도 이용용이성과 감정노동: 병원근로자의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40(3), 213-240.
- 이정현(201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육아지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에 관한 연구: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엄명용(2013).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4(2), 111-140.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2-2), 1-526.
- 정남옥(2009).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영유아를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2), 236-244.
- 정미현(2019).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부모교육연구** 16(2), 19-36.
- 정미현·이경주(2020). 양육효능감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모교육연구**, 17(3), 19-37.
- 정숙향(2023). SNS 기반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형숙·김수오(2024).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한 사회적 갈등과 양육부담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239-253.
- 차동혁(2014).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희·문혁준(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빛내·정현숙(2021). 학령기 학부모를 위한 Bandura 부모효능감 척도 타당화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9(4), 49-67.
- 한선혜(2009). 자폐성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다겸(2025). 워킹맘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관계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다중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 Ehrenberg, M. F., Gearing-Small, M., Hunter, M. A., & Small, B. J. (2001). Childcare task division and shared parenting attitudes in dual-earn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50(2), 143-153.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 *Paid leave for fathers: Recent OECD policy trends (OECD Publishing)*.
- Pizarro, J., & Gartzia, L. (2024). Paternity leave: A systematic review and directions for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4(1), Article 101001.

Abstract

The Impact of Fathers' Satisfaction with Parenting Support Systems on Parenting Behavior during Infancy: Sequent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Burden and Parenting Efficacy

Park, Si Young* · Eom, Eun 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fathers' satisfaction with parenting support policies on parenting behaviors for infants, with a focus on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urden and parenting efficacy. Using data from the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538 fathers of infants were selected as the final sample.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significant associations among satisfaction with parenting support policies, parenting burde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both parenting burden and parenting 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Furthermore, sequential mediat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higher satisfaction with parenting support policies reduced parenting burden, which subsequently enhanced parenting efficacy, ultimately leading to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hroug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inuous pathway. These findings are academically meaningful in that they identify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fathers' parenting practices within the recently restructured parenting support system. The study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refining demand-centered polici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ducing parenting burden and strengthening efficacy to promote supportive fathering behaviors.

Keywords : fathers, satisfaction with parenting support policies,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burden, parenting efficacy

* Doctorate Cours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Manisan Kindergarten Teacher